

모빌리티 로컬(Mobility Local)의 관점에서 본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Oh Jung-hee's *Chinese Street* from the Perspective of Mobility Local

정진숙* / 유춘동**

국문요약 이 글은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를 존 어리(John Urry, 1946~2016)가 제시한 모빌리티의 주요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의 면모를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 거리」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당대의 사회·생활상을 작가의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그동안 여성문학의 관점이나 성장소설의 시각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주인공이 고향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이사 온 것을 계기로 작품이 진행되고 그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통한 작품의 분석은 이 작품을 입체적이면서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오정희, 중국인 거리, 모빌리티(Mobility), 로컬(Local), 문화, 문화 분석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차례

1. 「중국인 거리」와 모빌리티 방법론
2. 「중국인 거리」의 인천 차이나타운, 모빌리티 방법론과의 연계
3.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아버지'와 모빌리티의 의미
4. 마무리와 과제

1. 「중국인 거리」와 모빌리티 방법론

이 글은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⁰¹를 존 어리John Urry, 1946-2016의 모빌리티mobility 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⁰² 「중국인 거리」는 한국 전쟁 직후 인천 지역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나'의 성장 과정,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삶,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여러 인물 군상群像을 작가의 섬세한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그동안 이 소설은 여성주의적 시각이나, 작자의 '성장成長'을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가 되어왔다.⁰³ 하지만 이 소설의 핵심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나'를 포함한 가족,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포착하여 그 현재적 의미를 묻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

01 이 글에서 다룬 주 텍스트는 문학과지성사에서 2020년에 간행한 오정희의 중판판권이다. 『저녁의 게임—오정희 중판판권』, 문학과지성사, 2020. 이후 작품을 인용할 때는 해당 연수만 쓰기로 한다.

02 존 어리가 제시한 모빌리티의 주요 이론, 그리고 이진형이 제시한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상을 살펴보았다. 이진형, 「새 모빌리티의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모색」, 『대중서사연구』 24(4), 대중서사학회, 2018, 377~378쪽.

03 이재선과 우찬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소설을 여성주의 소설, 성장소설의 시각에서 연구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의 사례를 참조. 이재선 『한국 현대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이 외에도 300여 편에 이르는 관련 연구 논문이 있다.

은 작품의 주 배경인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 차이나타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선박, 항구 등의 모빌리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다.

모빌리티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여러 형태의 이동, 교통, 통신에 대한 분석, 모빌리티로 매개로 발생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복합적 방식의 생활,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 등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다.⁰⁴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 다양한 모빌리티가 등장하여 ‘나’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오정희의 소설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에 머물기보다 양피지 위의 글쓰기처럼,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품은 들끓는 도가니에 가깝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⁰⁵ 모빌리티의 주요 방법론을 적용하여 살펴본 이 글의 시도는 이 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04 이 글의 핵심 연구 방법론은 존 어리가 제시한 모빌리티 이론이다. 이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단행본을 참조했다. 존 어리, 김태한 역, 『존 어리 모빌리티』, 앨피, 2022, 18~23쪽.

05 심진경, 「거울 속에서 아버지를 보다」, 『저녁의 게임—오정희 중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20, 587쪽.

2. 「중국인 거리」의 인천 차이나타운, 모빌리티 방법론과의 연계

모빌리티의 이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빌리티와 연계된 시공간의 존재, 이로 인해 발생한 주인공의 삶의 변화 등의 존재 유무이다. 소설 「중국인 거리」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이론을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소설의 핵심 공간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다. 이곳은 주인공인 ‘나’를 비롯하여 나의 가족, 친구들, 미군과 연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차이나타운 상점가의 중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작품에서의 인천 차이나타운은 철도와 철길, 제분 공장, 항만, 배, 언덕 위의 동상⁰⁶ 등으로 세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공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변모된 ‘나’의 모습을 알아간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모빌리티의 이론에서 제시된 “장소에 고정⁰⁶ 철도, 제분 공장, 이동이 가능하고 휴지의 가능성⁰⁶ 트럭, 자전거, 선박, 이동이 유무⁰⁶ 트럭, 자전거, 선박, 모빌리티 시스템의 구성요소⁰⁶ 자동차, 비행기, 배, 철도 유무”⁰⁶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이에 의거하여 지역 공간이 주는 의미, 작품의 서사 전개에서의 의미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핵심 공간인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주인공 ‘나’가 이사 오기 전에 살며 경험했던 시골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①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들어가 석탄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06 존 어리, 김태한 역, 앞의 책, 89쪽.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훑쳐 담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 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빵 등이 날라져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²⁸⁸면

주인공인 ‘나’는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시골해서 했던 놀이가 기껏해야 “땅뺏기놀이나 사방치기”²⁹¹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천으로 이주하면서 ‘나’는 예전과 달라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친구들과 함께 선창가에서 굽어모은 석탄가루나 조개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를 알게 되는 현실적인 자아로 변모한다. 따라서 주인공 ‘나’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를 오게 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이주의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주는 부여한 곳이다. 모빌리티에 의해 부여된 다양한 상상과의 소통을 통해 나의 본성은 변화를, 그리고 나는 다시 사유를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모빌리티의 주요 이론이라고 할 때,⁰⁷ ‘인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소설 속의 배경이 아니라 서사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폭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조그만 베란다가 붙은, 같은 모양의 목조 이층

07 위의 책, 23쪽.

집들이 늘어선 거리는 초라하고 지저분했으며 새벽닭의 첫 날갯짓 같은 어수선했던 활기에 차 있었다. 그것은 이른 새벽 부두로 해물을 받으러 가는 장사꾼들의 자전거 페달 소리와 항만의 끝에 있는 제분 공장 노무자들의 발길 때문이었다. 그들은 길을 메우고 버터 섀트릭과 함부로 부러진 이삿짐을 피해 언덕을 올라갔다. 지난 밤 떠나온 시골과는 모든 것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 우리가 정말 이사를 온 것일까, 낯선 곳에 온 것일까, 이상한 혼란에 빠졌다.²⁹⁵⁻²⁹⁶면

이주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나’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는 자전거 페달 소리, 제분 공장 노무자들의 발길, 트럭, 일꾼들 소리 등이다. 이러한 모빌리티, 모빌리티로 인해 만들어진 소리들은 ‘나’에게 사람들의 단순한 이동이나 관심의 시선을 갖게 되는 계기만이 아니라, 활기에 찬 도시 공간의 모습을, 다른 한 편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기존의 모빌리티 연구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걷는 사람”처럼 이동하는 대상을 포착하여, “현전하는 사람과의 면대면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타인과의 교체”처럼 사회 내 타인과의 관계 등을 포착하였다.⁰⁸

‘나’는 인천 차이나타운 내에서 경험하는 모빌리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함께 있는 여건에서 이따금 자신 안에 느끼는 세찬 힘 혹은 에너지 분출”을 경험하며, “강렬한 정서적 느낌을 통해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려는 강박을 자아”낸다.⁰⁹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사물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행위성’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즉 주인공 ‘나’는 “공원 꼭대기 전설”³¹²면로 남아있는 “상륙 작전의 총 지휘이

08 위의 책, 91쪽.

09 위의 책, 95쪽.

있던 노장군의 동상”³¹²면에 올라, 극도의 절제를 통해서, “온갖 욕망과 성질을 단 하나의 동그라미로 단순화”³¹²면시키며,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색채로 뒤범벅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몽똥그릴 한마디의 말”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모빌리티, 모빌리티로 인한 소리 등은 단순히 이동의 소재,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면모를 보여주는 소재가 아니라, 주인공인 ‘나’의 성장과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③ 러닝셔츠 바람의 미군 병사들이 부대 안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칼 던지기를 하고 있었다. 동심원이 그려진 과녁을 향해 칼을 은빛 침처럼, 빛의 한순간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공기를 갈랐다. 확확 바람을 일으키며 휘파람처럼 날아드는 칼이 동심원 안의 검은 점에 정확히 꽂힐 때마다 그들은 우우 짐승 같은 함성을 질렀고 우리는 뜨거운 침을 삼키며 아아 목젖을 떨었다.³⁰⁹⁻³¹⁰면

전쟁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치열했던 함포 사격에도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언덕 위의 이층집들과 우리 동네 낡은 적산 가옥들뿐이었다.³¹³면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이들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 내의 미군 주둔지는 그들만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고, 이들로 인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群像을 만들어냈다. 모빌리티의 이론과 연계한다면 이것은 ‘군사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군사 모빌리티’란 군대의 주둔을 포함하여, 군대의 주둔으로 인한 사람들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 방식이다.¹⁰

선행 연구에서는 이 문제는 백인 혼혈아 제니, 매기의 비극적인 삶의 초점을 두어 작품의 내적 의미만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모빌리티의 군사 모빌리티 방법론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어떤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각은 개인 주체, 보는 눈, 눈으로 할 수 있는 관찰로 훈련이 잘된 눈’¹¹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군의 주둔, 미군부대 도시의 성립, 미군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직업여성들의 삶은 어린 ‘나’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인 ‘치옥’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의 직접적인 매개 인물이었던 ‘매기 언니’의 죽음은 ‘나’와 ‘치옥’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직업여성인 매기 언니가 죽은 뒤에 “치옥이네 집에 숙제를 하러 가거나 놀러가지”³¹⁷면 앓는 생활의 변화를 맞이했고, ‘치옥’이는 매기 언니를 동경하다가 매기 언니가 죽고난 뒤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깡통에 파마약을 풀고”, “삼거리 미장원”에서 일하는 변화를 맞이한다. ‘나’와 ‘매기’는 유년 시절에 모두 ‘미군’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내 주변의 삶의 의미와 질서를 새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을 중심으로 모빌리티는 주인공인 ‘나’, ‘매기’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0 위의 책, 30쪽.

11 위의 책, 419~421쪽.

3.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아버지’와 모빌리티의 의미

오정희 소설을 평가할 때, 흔히 “부성(父性)의 부재(不在)”, “아버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아니 오히려 존재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그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부재하는 현존” 등이 거론되고 있다.¹² 소설 「중국인 거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버지는 이 소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는 이 소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 그 의미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모빌리티의 이론을 적용하면 이 소설에서 ‘아버지’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설 「중국인 거리」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후에,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트럭을 타고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온 가족들이 트럭을 타고 인천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히 주거지를 옮겨간 것이 아니다.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가족의 근거지가 변화한 것은 “가뭄, 박해, 전쟁, 기근 등을 피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 타 국가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주는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¹³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다름아닌 아버지 때문이었다.

④ 우리 가족이 이 도시로 이사를 온 것은 지난해 봄이었다. 너 아버지가 취직만 되면…… 어머니는 차곡차곡 쌓은 담뱃잎에다 푸우푸우 입에 가득 문 물을 뿜으며 말했다. 담뱃잎을 꺾꺾 눌러 담은 부대에 멜빵을 해서 매고 칠팔백에 나가

12 심진경, 앞의 글, 596~597쪽.

13 존 어리, 김태한 역, 앞의 책, 26쪽.

는 어머니는 이틀이나 사흘 후에 초주검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 간이 열이라도 담배 장사는 이제 못 해먹겠다. 너 아버지 취직만 되면…… 미리 월남해서 자리를 잡았거나 전쟁을 재빨리 벗어난 친구, 동창 들을 찾아다니며 구직 운동을 하던 아버지가 석유 도매업소의 소장직으로 취직을 하고, 우리를 실어 갈 트럭이 온다는 날 우리는 새벽밥을 지어 먹고 이불 보따리와 노끈으로 엉글게 동인 살림 도구들을 찾길에 내다 놓았다. 점심때가 되어도 트럭은 오지 않았다. 한없이 길게 되풀이되는 동네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도 끝났다.^{291번}

시골에 살던 아버지의 구직 활동, 그리고 인천으로 이주는 ‘나’를 포함한 가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위치계급의 변화,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삶에서 역할 변화”¹⁴도 포착되고 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사회적 위치는 직함은 비록 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석유를 배급하는 배급소의 일원으로 추락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천으로 그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주한 것은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아버지의 이주이동은 ‘공간space, 장소 place, 경계as boundless’에서 새로운 연계와 질서를 만들어¹⁵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아버지가 가족의 이주를 위해 보낸 ‘트럭’은 단순히 이주를 돕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일깨워주고, 가족 모두에게 정든 고향을 떠나 사회적인 박탈의 계기, 정든 동네 사람들과의 작별하여 기존의 인간관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아버지가

14 박명수, 「모빌리티 관점을 적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분석-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K-Culture 융합연구』 1, K-Culture 융합연구소, 2022, 36쪽.

15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 『국토지리학회지』 52(4), 국토지리학회, 2018, 474쪽.

트럭 운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들을 실은 트럭을 타고 이주할 때에 “할머니는 끔찍한 표정으로, 그러나 어련히들 잘 알아서 하겠느냐는 듯”한 반응은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술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아버지가 가족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트럭은 모빌리티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동차^{트럭}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가는 주요 운송 수단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모빌리티 이론에서 사람과 공간, 시간의 간극을 좁히는 기능을 한다. 이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 트럭이 나타난 것은 저물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헤드라이트를 밝힌 트럭이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다릿목에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차가왔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저마다 보따리 하나씩을 타고 앉았던 우리 형제들은 공처럼 튀어 일어났다. 트럭은 신작로에 잠시 멎고, 달려간 어머니에게 창으로 고개만 내민 조수가 무어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되돌아오고 트럭은 다시 떠났다.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중략…)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길이 굽이도는 곳에는 반드시 초소가 있어 한 차례씩 검문을 받아야 했다. 전투복을 입은 경찰이 트럭 위로 전깃불을 휘두를 때면 담배 장사로 간이 손톱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어머니는 공연히 창밖으로 고개를 빼어 소리쳤다. 실컷 보시오, 암만 뒤져도 같잖은 보따리와 새끼들뿐이오. 트럭은 기름을 넣기 위해 한 차례 멎고 두 번 고장이 났으며 굽이굽이 수많은 검문소를 지나쳐 강과 산과 잠든 도시를 밤새도록 달려 날이 밝을 무렵 이 도시로 진입했다. 우리가 탄 트럭의 요란한 엔진 소리에 비로소 거리는 푸들푸들 깨어나기 시작했다.^{294-295면}

작품에서 자동차^{트럭}은 원래 예정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밤늦게야 도착한다. 이때 자동차^{트럭}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어리둥절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계기가 된다. 이는 운전자의 난폭 운전에서 생긴 것이지만¹⁶, 자동차^{트럭}에 탑승하는 순간, 가족 간의 새로운 변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⑥ 석유 배급소의 유리문을 밀어붙이고 나온 아버지는 약속이 틀린다고 운전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운전사는 호기심과 어쩔 수 없는 불안으로 눈을 두릿두릿 굴리고 서 있는 우리들과 이삿짐들을 번갈아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사대질을 해댔다. 목덜미에 시퍼렇게 면도 자국을 드러낸 뒷박 머리에 숨이 빠져나온 노랑색 인조견 저고리를 입은, 아홉 살배기 버짐투성이 계집애인 나는 동생을 업고 이상하게 안절부절못하는 심사로 우리가 살게 될 동네를 둘러보았다. 우리의 이사 소동에 동네는 비로소 잠을 깨어 사람들은 들창을 열거나 길가에 면한 출입문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내밀었다.

(...중략...)

이삿짐을 다 부러놓고도 트럭은 시동만 걸어놓은 채 떠나지 않았다. 요구한 액수대로 운임을 받지 못한 운전수는 지구전에 들어간 듯 운전대에 두 팔을 얹고 잠깐 눈을 붙였다.

아이 시끄러워, 또 난리가 쳐들어오나, 새벽부터 웬 지랄들이야. 젊은 여자의 거두절미한 섯소리가, 시위하듯 부릉대는 차 소리를 단번에 눌러 끄며 우리의 머리 위로 쨍하니 날아왔다.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는 망연해져 고개를 쳐들었다.^{296~297면}

16 존 어리, 김태한 역, 앞의 책, 280~281쪽.

자동차^{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의 상황은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운전사가 요구한 운임이 아니라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 운전사가 이삿짐을 길가에 함부로 부려놓고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지역 주민은 욕설로 방치하는 상황, 이 모든 것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자동차로 발생한 이주는 “공간도시 구성, 노동과 자본의 변화와 변형”¹⁷ 등의 영향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도 변화를 준다고 했다. 이 작품에서 트럭은 모빌리티의 관점에 부합된 것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직간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 작품을 연구하면서 대부분 아버지가 부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활동하는 생계 부양자로서의 면모를, 모빌리티의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와 과제

이상과 같이, 이 글은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를 존 어리 John Urry가 제시한 모빌리티의 주요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중국인 거리」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당대의 사회·생활상을 선행 연구처럼 여성문학의 관점이나 성장소설의 시각이 아닌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해 보았다.

모빌리티 연구는 사회과학, 인문지리학, 건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17 위의 책, 4쪽.

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문학 텍스트와 연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전쟁을 피해 시·공간의 경계를 넘은 이주, 작품에 다양한 모빌리티 등장과 이를 통한 인간과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공간적 배경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등장하여 ‘나’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방법론을 통해서, 「중국인 거리」와 모빌리티 방법론, 「중국인 거리」의 인천 차이나타운, 모빌리티 방법론과의 연계,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아버지’와 모빌리티와 의미 등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모빌리티의 방법, 방법론의 적용, 그리고 작품 내의 중국인, 미군의 문제와 같은 문제를 모빌리티 방법론과 연계하여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지녀의 게임-오정희 중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20.

존 어리, 김태한 역, 『모빌리티』, 엘피, 2022.

2. 단행본 및 논문

가스통 비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권현익·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박명수, 「모빌리티적 관점을 적용한 한국현대소설의 분석-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1, K-Culture 융합연구소, 2022.

심진경, 「거울 속에서 아버지를 보다」, 『지녀의 게임-오정희 중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20.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2.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이재선, 『한국 현대 소설사-1945~1999』, 민음사, 1991.

이진형, 「새 모빌리티와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텍스트 연구 방법의 모색」, 『대중서사연구』 24(4), 대중서사학회, 2018.

피터 메리만·린 피어스 편저, 김태희 외역, 『인문학, 이동을 생각하다-모빌리티와 인문학』, 엘피, 2019.

Abstract

Oh Jung-hee's *Chinese Street* from the Perspective of Mobility

Jeong Jin-sook / Yoo Choon-dong*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Oh Jung-hee's novel *Chinese Street* focuses on migrants on the border after the Korean War from the perspective of mobility. While the focus of modern mobility is on means of transport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hysical, social, geographical, and physical movements of migrants who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by textual research. John Urry's book *Mobility* discusses the joy and pain people get from moving, which come from people, things, and information.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elicate representation of middle-aged women in Oh's novel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geographical movement of 'father' and the process of physical movement of 'I' are depicted.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various and new horizon movements in the backdrop of *Chinese Street*.

Keywords Oh Jeong-hee, Migrants, Mobility, John Urry Mobility, Chinese Street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angwon National University.